

지역 매 아리

김종규 부안군수 예비후보  
“농업인 상토비 및 종자대 지원”



무소속 김종규 부안군수 예비후보는 23일 줄포면 영농현장을 방문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규 후보는 줄포면 주민들의 영농현장을 찾아 농민들과 대담에서 ‘농업인 상토비 및 종자대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김종규 후보는 시골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노인분들을 위하여 ‘이·미움비 지원’과 ‘목욕비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제시하고 “줄포생태공원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국 바둑대회 및 바둑계대회를 지금보다 더 많이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규 후보는 군민 참여를 늘리는 실질적 복지행정 구현 및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된 민생 확보를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  
‘행복펀드’ 목표액 조기 달성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가 추진한 ‘행복펀드’가 조기 마감 되었다.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 측은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을 펀드 모집을 통해 목표액 1억 원 규모로 ‘행복펀드’를 추진했는데 당초 모집기간인 6월 12일보다 2주일 이상 앞당긴 지난 22일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다. 권익현 후보는 부안군수 법정선거비용 한도 이내인 1억 원을 목표로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행복펀드를 모집했으며 원금은 연이자 3.65%를 적용해 입금 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일할 계산해 설정자에게 참여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오는 8월 13일부터 반환할 계획이다. 권익현 후보는 “행복펀드가 조기 마감된 가운데 아직도 펀드 참여를 위한 문의 전화와 개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전 군민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군이 올 4월에 하전자율관리공동체 바지락 판매장을 완공하여 준공식을 가졌다.

# 하전바지락 판매장 준공

## 고창군, 우수 자율관리공동체 선정 7억1400만 투입 불법어업 예방 · 어업생산성 향상 등 소득증대 기여

고창군이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우수 자율관리공동체를 선정해 어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총 7억1400만 원을 투입해 하전에 바지락 판매장을 완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자원증가와 어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전국 어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주요활동 실적을 심의해 우수 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전 자율관리공동체는 2001년 결성하여 꾸준한 활동을 통해 2016년에 선진 공동체로 선정되어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서 7억1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7년 7월 착공해 올 4월에 하전자율관리공동체 바지락 판매장을 완공하여 최근 준공식을 가졌다.

이길수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하전 바지락 판매장을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수익 창출과 경쟁력 강화로 어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어업인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신규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에는 12개 자율관리공동체가 결성돼 약 7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어업단위 자율관리공동체 7개소, 어선어업 공동체 2개소, 복합어업 공동체 2개소, 내수면 공동체 1개소가 결성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우리가 꿈꾸는 세상’ 호응

###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교육지원청 프로젝트... 공동체의식 · 애함심 고취 기여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정읍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물론 공동체의식과 애함심 고취에도 기여하고 있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가 정읍시, 정읍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지역과 마을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어울려 보고, 듣고, 보고,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마을 소속 일원으로서의 공동체의식과 애정을 높인다는 취지다.

프로젝트는 크게 ‘마을로 가는 소풍’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로 가는 소풍’은 마을로 소풍을 가서 곳곳을 둘러보고 마을 관련 이야기를 듣거나 다양한 놀이를 하며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수성을 키우는 시간이다. 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가을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14개 학교, 1,600여명의 학생들이 송죽마을과 신기마을, 영안마을 등 17개 마을을 찾아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모두 8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현재까지 3회 진행됐다. 각 마을과 지역 공동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각

마을별로 다양한 체험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마을로 가는 기관단체’는 정읍 지역 내 각급 기관·단체들이 수시로 마을과 공동체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내 기관이나 단체, 기업의 조직원들이 마을과 소규모 공동체의 활동상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공동체 활동을 홍보하고 각 공동체들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3개 기관은 이 외에도 올 가을에는 가을 소풍과 연계한 교육바람피로도 가질 예정이다. 더불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학생들이 마을과 공동체의 경험을 토대로 진로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음식의 맛’ 멋을 알리다

### 부안군 농기센터-전주대, 매주 13~15개 업소 컨설팅 추진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가 맛의 도시로 거듭나려고 전주대학교 국제한식조리학과 민계홍 교수팀을 주축으로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부안음식의 맛’을 알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부안에서 열리는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와 부안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부안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컨설팅은 지난 4월 24일부터 매주 13~15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진행되며 뽕 비빔밥 희망업소와 컨설팅 희망업소부터 시작해 각각 음식점에 맞게 음식 외형적, 위생적, 서비스요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자 인식교육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부안군과 전주대 민계홍 교수팀은



부안군에 맞는 특색있는 레시피를 개발해 음식점의 경영방식과 현실에 맞게 접목시켜 소비자와 경영주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영주에게는 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소득향상을,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특색있는 고품격 음식을 제공해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부안음식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 유진섭 정읍시장 예비후보 ‘상생과 화합, 대통합의 정치 선언’



지난 22일 재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로 확정된 유진섭 후보가 23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로 선출돼 주신 시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경선에서 아쉽게 2위에 머무른 김석철 후보와 그 지지자분들께도 감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3차 단일후보로 저

를 추대하셔서 끝까지 지지해 주신 우천규, 김영재 예비후보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말했다.

유진섭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상생과 화합, 대통합의 정책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분열로 시민과 당원분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의미에서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본선에 임하겠다.”라고 밝히며 “기존의 요란한 선거 운동에서 벗어나 정책선거,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라고 역설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1인미디어 제작 및 송출 용역보고회

고창군이 북부자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인 ‘1인 미디어 제작 및 송출’ 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지난 21일 군청 상화실에서 이길수 고창군수 권한대행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보고회에서 1인미디어 제작 및 송출 용역을 맡은 (주)MBC아카데미는 고창군의 대표적 농산물인 북부자를 활용한 스낵영상 제작과 오디오 MCN 공모를 통해 온라인 홍보와 마케팅의 트렌드변화에 맞춘 새로운 홍보, 콘텐츠 개발로 북부자 판로 촉진과 신규 시장 확대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창 북부자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3년간 국비 15억 원 등 총 30여원을 투자하여 고창 북부자의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융·복합화된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군은 북부자 6차산업교육, 아간관광조성,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부자 수확시기에 맞춰 오는 6월 16일 부안면 용산리 북부자를 러스터단지 일원에서는 ‘북부자 Day 선포식’이 가수 거미의 로맨틱 콘서트와 함께 방만을 위한 다양한 의견 릴 계획을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眞心 홍삼주

진안고원 JINAN GOWON  
홍삼주